

이란 IRGC해군, " 호르무즈 통제권에 대한 미국의 간섭에 군사보복"경고

등록 2026.05.31 07:48:45



[반다르아바스=AP/뉴시스] 2026년 5월2일 이란 반다르아바스 앞 호르무즈해협에 벌크 화물선 한 척이 정박해 있는 모습.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5월 30일 이란의 이 곳 통제를 강조하면서 이에 대한 미군의 간섭은 군사적 보복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6.05.31.

[서울=뉴시스] 차미레 기자 = 이란의 이슬람혁명 수비대(IRGC) 해군은 30일(현지시간) 성명을 발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운영권"(management)에 대한 미국의 간섭은 앞으로 "엄격한 군사적 보복"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신화통신이 이날 런던발 기사로 보도했다.

IRGC해군은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 흩어져 있는 전함들의 승무원들에게 (신화통신이 제공한)공용 해상무선통신 채널 대화의 녹음 내용을 제공하면서, 페르시아 만과 오만 만에서 작전 중인 타국 함정들에 대해서도 이런 경고를 했다고 밝혔다.

경고 내용은 "호르무즈 해협은 여전히 봉쇄 중이며 이 곳의 통항은 IRGC해군으로 부터 받은 허가가 있어야만 할 수 있고, 이란이 지정한 항로를 통해서만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고에는 그런 규칙들 가운데 하나라도 위반할 경우에는 항해의 안전을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게 될 것이라는 내용도 첨가되어 있었다.

이 라디오 방송 경고에서 IRGC 해군은 "만약 미 해군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통제권에 간섭하거나 항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엄격한 군사작전에 맞닥뜨리게 될 것이라고 재차 밝혔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보다 앞서 지난 29일 호르무즈 해협의 이란 해운에 대한 봉쇄를 해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서울=뉴스시스]미 해병대원들이 4월14일 미 중부사령부 관할 지역에 있는 상륙돌격함 USS트리폴리호에서 고속 로프 강하 훈련을 펼치고 있다. 미군은 5월20일 오만만에서 미국 봉쇄를 위반했다며 이란 국적 유조선에 강제 탑승했다. 이란 이슬람혁명 수비대(IRGC)는 미군이 이란의 통제권에 개입할 경우 군사보복을 하겠다고 30일 경고했다. <사진 출처 : 미 네이비 타임스> 2026.05.31.

하지만 영국이 국제해사국을 통해 발표한 2024년 2월에 설립된 합동해상정보센터(Joint Maritime Information Center : JMIC) 제보는 미국의 이란 항구들에 대한 봉쇄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알려졌다. 이란 항구를 드나드는 모든 선박의 입·출항이 여전히 금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이 주도하는 해사법의 테두리 내에서 자문활동을 하는 다국적 자문기구인 JMIC는 "미국의 봉쇄에 따르지 않는 선박들은 미군의 단속 대상이며, 심하면 무력 공격을 당해서 배가 파괴되거나 기능이 정지 될 수도 있다"고 경보를 발했다.

호르무즈 해협 부근에 있는 선박들의 승무원이 같은 공용 라디오 채널을 통해 제보한 내용에도, 미군이 토요일인 30일 새벽에 선박 한척이 호르무즈 해협에 접근한 데 대해서 즉시 선수를 돌려 돌아가라고 경고했다는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

미군 측은 그 선박에 대해서 미군이 항로를 감시하고 있으니 명령에 따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스시스 cmr@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